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
배포일시	2024. 4. 22.(월)	공보담당관실	02-6788-3655
담당부서	관리국 관리과	담당과장	관리과장 강건희 (02-6788-2545)
		담당자	서기관 구희재 (02-6788-2019)

"이 시계가 멈추기를..." 국회사무처, 기후위기시계 설치

-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.5°C 상승까지 남은 시간 기록 -
- 기후위기 이해관심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
- 백재현 사무총장 "전 세계 의회 기후위기 대응 노력 확산에 불씨 되길" -

국회사무처(사무총장 백재현)는 4월 22일(월) ‘지구의 날’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.

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.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“산업화 이전(1850~1900년) 대비 지구 평균기온 1.5°C 상승”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.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.

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·예산 심의기관이자, 정부·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,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.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.

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,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국회 기후위기사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(ASGP)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의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.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▲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▲기후위기사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.

오늘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(위원장), 임이자 의원(간사), 권영진 입법차장,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경 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하여 참석했다.

백 사무총장은 “국회 기후위기사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” 며 “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“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·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“국회의 기후위기사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” 이라며 “제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한편 백 사무총장은 제막식 행사 종료 후 국회수소충전소를 방문한 데 이어, 국회의원회관 후면 인근에 ‘국회 탄소중립 실천나무’ 로 2.5m 높이 15년생 소나무(백송)를 직접 식수했다. //끝.